

교복 비싼 이유?...알고보니 광주 업체들 161억 입찰 담합

납품업체들 출혈 경쟁 피하려 낙찰 받을 학교 배분한 후 투찰가 공유
광주 업체 59곳 중 45곳 289차례 담합 참여...3년간 부당이익 32억
1인당 6만원 더 비싸게 구매하고 혈세 낭비까지...광주지검 31명 기소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담합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교복 판매·대리점 업체 A(63)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3년간 챙긴 부당이익은 총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복을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게 된 셈이다.
교복 납품업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하자 저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해 매년 관행처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학교 교복 납품이 가능한 45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업주도 있었다. 업체별로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업주들은 사전에 SNS,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낙찰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냈다.
교육청·학교 등에 교복업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함께 투찰(가격을 적어 내 입찰하는 방식)가격을 공유해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투찰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6%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초기 평균 70%대이던 투찰률이 담합을 통해 95%대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사 전 97%대 였던 광주지역 A학교 교복 입찰 투찰률은 수사 이후 평균 79.029%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없을 경우 교복 한 벌을 평균 23만7588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광주지역 교복 평균 구매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 상승했다.
이들은 또한 담합을 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을 하거나, 투찰을 했음에도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은 업체가 있을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더 저가로 투찰을 진행해 담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담합 업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은 소비자들의 손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 별로 중·고교 입학생에 한해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국 교복 투찰률 등을 분석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이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90%대가 넘는 투찰률을 보이는 지역은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교복값 담합을 밝혀낸 첫 수사 사례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여성 8명 올린 30대 카사노바 수법은?

채팅방서 자존감 낮은 여성 접근...2억대 갈취·성범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8명의 여성과 접촉해 2억 2000여만원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현대판 '카사노바'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1일 사기, 강간 등 7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A(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8명의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려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자존감이 낮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여성들을 골라 채팅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았다. 이후 광주·전남 곳곳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성관계를 맺

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BMW)를 피해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차를 바꾸고 싶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들은 적게는 1000만원부터 최대 9000여만원까지 A씨에게 돈을 보내 줬는데, 이렇게 쌓인 피해 금액만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받은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뜯어낸 돈은 영암군 F1경기장에서 취미 삼아 레이싱카를 빌려 타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

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8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사기, 강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수배 중이며, 동종전과로 지난 2021년 10월까지 6개월 징역을 살고 출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5일 A씨를 영암군 F1경기장에서 발견해 체포, 구속 수사를 이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언제 다시 출발해야 하나”...엉거주춤 운전자들 “헛갈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동행해보니

광주 주말·휴일 52건 적발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이라 아직 어색해요. 이제 출발해도 되나요?”
2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인근의 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일제히 ‘거북이 걸음’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최근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는데, 운전자들은 아직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어색한지 일단 차를 멈추고 신호등을 연신 쳐다보며 느릿느릿 우회전을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30여분에 걸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을 한 결과 이곳을 통과한 170여대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두 대의 차량이 줄지어 우

회전 신호등 적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앞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꼬리를 몰듯 뒤 차량도 따라갔다. 이들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을 지켜본 경찰은 “아직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계도기간인 만큼 이들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호를 잘 지킨 운전자들도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였다. 우회전 신호등 청신호를 받고도 일단 차를 멈췄으나, 언제 출발해도 되는지 몰라 주춤거리는 차량이 많았다.
김자인(여·40대)씨는 “신문 보도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아직 신호등이 어색해서인지 언제 다시 출발해도 될지 헛갈린다”며 혀를 내둘렀다.
광주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새로 설치한 극락초 등 광주 시내 5곳에서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

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한 결과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 또한 나주시에서 우회전 신호등 9개를 시범 설치하고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현재 전남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회전 신호 잘 지키세요” 광주경찰이 24일 광주시 서구 극락초 인근 사거리에서 운전자에게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